

'94 동국중흥 큰잔치 5월15일 개최 적극적인 기금마련기획 준비돼야

'94 동국중흥 큰잔치- 모교방문의 날 행사 오는 5월1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학교당국, 서울-경주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은 지난 3월30일과 4월 1일 두차례 동국중흥큰잔치- 모교방문의 날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행사 개최에 필요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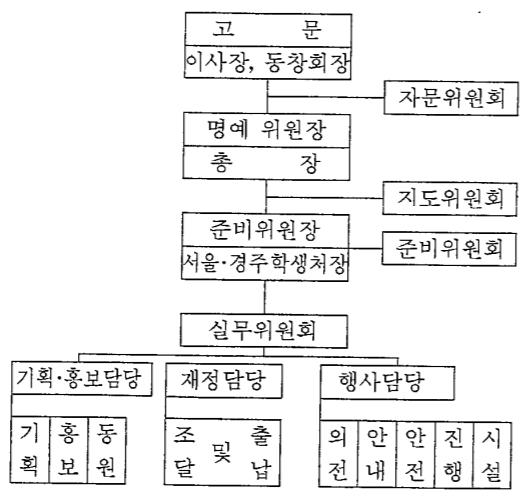
1차 준비위원회

동국중흥 큰잔치- 모교방문의 날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4일 서울캠퍼스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명칭을 동국중흥 큰잔치- 모교방문의 날로 정하고 오는 5월15일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루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말이라는 명칭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많이 사용했으며 전 동국인이 어울리는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국중흥 큰잔치로 결정하게 됐으며 당초 행사가 5월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5월 14일 제등행렬이 예정돼 있는 날이어서 중단의 참여 유도나 동문참여의 명분이 스승의 날인 5월15일에 더 있다는 판단이 들어 행사를 하루 연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으며 오는 7일 있을 2차회의에서 행사초안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직위 및 부서	분장 업무
상임지도위원	행사 전반적인 사항 총괄
준비위원장	행사 전반적인 사항 지도, 감독
실무위원장	행사 기획, 진행 및 전반적인 운영
기획·홍보담당	기획: 행사계획 수립, 인원동원, 출연자 교섭 홍보: 교내외, 동문, 유관단체 및 언론홍보
재정담당	예산 편성 및 지출, 자금계획 수립 및 조달
행사담당	의전: VIP초청, 안내 안내: 당일 행사장 안내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 의약품 준비, 화재 등의 재해 예방 진행: 행사 사진 점검, 당일 진행 시찰, 행사장 준비

행사개요
동국중흥 큰잔치-모교방문의 날의 개최목적으로 준비위원회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든 동국인의 일치단결 도모 △동국도약의 원년 △동국발전의 참여의식 고취 및 발전기금 조성등을 설정했다.

또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재학생, 교직원, 동문, 법인 및 중단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동문들에게는 모교방문의 날로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축제의 날로, 재단·중단 및 불교계 인사에게는 유익불사의 입제일로 행사의 의미 설정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에게 입장권 판매 및 찬조품 출연 유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오는 7일 있을 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과 10일 양일간 실무위원회 합숙등을 통해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행사일정이 너무 촉박해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실무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유기적 결합 신속한 업무처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국중흥 큰잔치-모교방문의 날 준비위원회 구성
이번 행사의 주축은 '94 동국중흥 큰잔치-모교방문의 날 준비위원회'이며 주관은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캠퍼스 총학생회, 총동창회이며 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및 산학단체,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맡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경 및 총무원장, 교구본사 주지, 동창회 부회장단 및 임원으로 구성

되며 지도위원회는 서울-경주 부총장(상임), 총학생회장(상임), 교수회장, 노조위원장, 각 대학원 학생회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및 실처장으로 꾸러지게 된다.

또한 서울-경주 학생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아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행사를 직접 준비하게 된다.

참가 예상 인원

이번 행사의 성패는 우선 얼마나 많은 동국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일이 스승의 날이자 일요일이라는 점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재학생들의 참여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원회 측은 행사 참여인원을 7천~8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경주 재학생 5천여명이상이 참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문, 중단,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전을 위한 계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요예산

이번 행사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약 1억4천여 만원. 당초 학교에서는 1억원정도를 예상하고 확보해둔 상태이다. 준비위원회측은 부족분인 4천여 만원에 대해 임차료 수입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반적 문제점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행사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하나 행사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학생동원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주캠퍼스의 경우 행사 시작시간인 오후 2시30분에 도착하려면 오전 8시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일요일 오전 8시까지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한편 행사 의의에 맞는 기금모금사업의 정책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순한 행사의 참여 유도만으로 기금마련사업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모금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석중 기자)

보리수

화합의 의미

불법(佛法)이 아무리 좁아도 하여도 승가(僧伽)가 없으면 불법은 전하여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승의 삼보의 하나로 승보에 해당하는 스님들에게 귀의의 예경을 올린다.
승가는 출가의 제자로서 율장(律藏)에 의거하여 생활을 한다. 율장은 단지 행위의 금지나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공동 생활태의 규율로서 양보와 신뢰와 존경의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시불교의 장로비구들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은 개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도를 만들지 말라는 원칙을 정하여 승단의 율장정신이 곧 부처님의 정신임을 보전 하려고 하였다. 아무리 시대가 변천을 하고 의·사·주의 환경이 변한다 하여도 승단의 규율은 그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하여 오는 것이 승단의 역사로 전통이었다.

불법도 존경을 받고, 승려가 경시당하면 불법도 경시 당한다. 備重則法重(備重則法輕)이라고 하였다.
승가(Sangha)는 화합의 수행단체이다. 혼자서 짊어 수 있는 머리카락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짊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의미이며 기술상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단 분규사태의 근본 원인을 율장에서 밝히면 율장에서 말하는 승가의 화합이란 함께 계율을 논한다는 동일심계(同一說戒)와 함께 결의(회의)를 한다는 동일갈마(同一伽藍)라고 하였다. 즉 함께 모여 계율을 만든다는 원칙을 정하여 승단의 율장정신이 곧 부처님의 정신임을 보전 하려고 하였다. 아무리 시대가 변천을 하고 의·사·주의 환경이 변한다 하여도 승단의 규율은 그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하여 오는 것이 승단의 역사로 전통이었다.

그러나 요즘을 교단의 실태는 극히 열려스럽다. 보도를 통하여 노출되는 승단의 부패성은 불교라는 한평생 종교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종교로서 전 국민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 그래서 중국의 종색선사는 '승려가 존경을 받으면

崔法慧

원로회의, 서원장 퇴진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해암스님)는 서의현 총무원장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단무제의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기로 결의해 앞으로 서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력기사 4, 7면)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대각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을 결정한 지난 30일 임시 중앙총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서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대각사 3층 법당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원로회의 스님 13명 가운데 해암, 비룡, 도천, 용담, 도천, 원담, 지중, 고승 스님들 8명이 직접 참석

했으며, 월하 스님(통도사 방장)은 부방장인 청아 스님을 대리참석시켰고 승찬스님(송광사 방장) 등 2명은 위임장을 통해 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과 범종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기로 했으나, 범종추측에서만 청화, 회연, 도법, 지선 스님들 4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 의장 해암 스님은 이날 발표한 '조계종 사태에 대한 원로회의 결의사항'을 통해 "중도들의 마음을 저버리고 강행된 지난 30일 중앙총회는 무효이며 오늘의 법안 사태를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서의현 총무원장을 즉각 사퇴시

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로회의는 "중단이 혼란에 빠져 여러 중도와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준 데 대해 사죄한다"고 말하고 "오는 10일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해 중단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원로회의의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중원총법상 원로회의가 총무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원장의 즉각 사퇴 결의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단 내의 최고기구라는 점에서 남은 입지와 관련없이 서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로회의는 이날의 결의사항을 총무원측에 공식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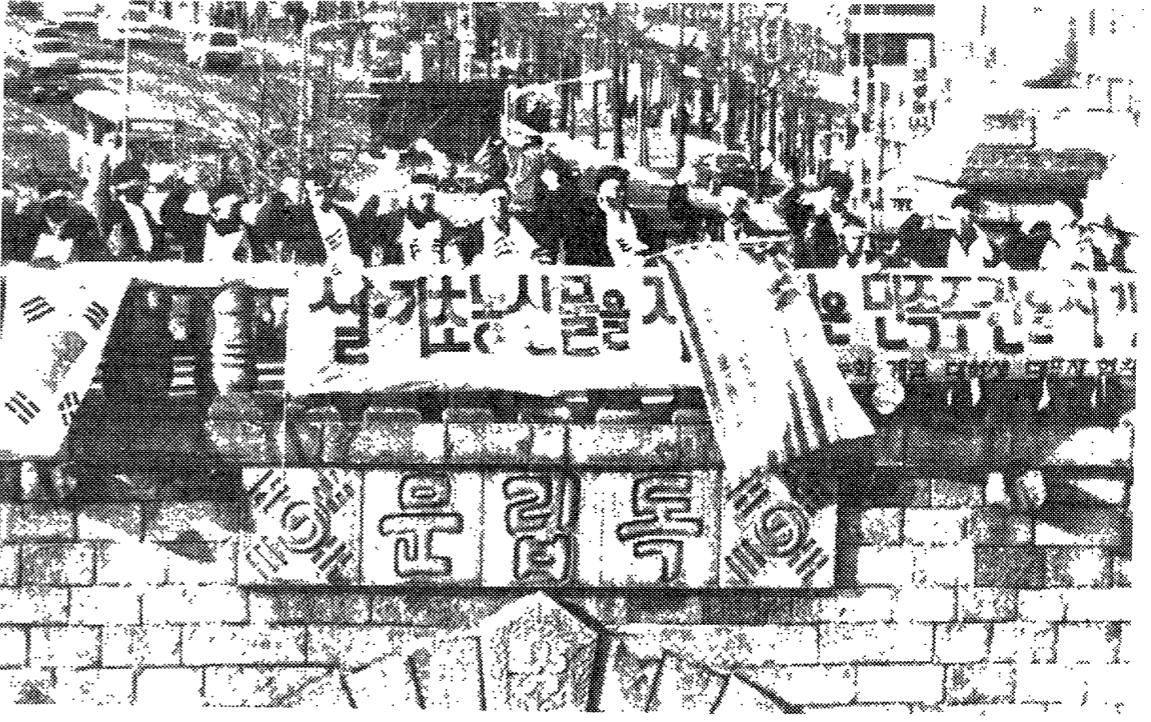
이와함께 원로회의는 "지난 29일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교권유린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종추는 지난 5일 오후 7시 중앙승가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로회의의 결의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서의현 총무원장은 원로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로회의, 서원장 퇴진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해암스님)는 서의현 총무원장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단무제의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기로 결의해 앞으로 서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력기사 4, 7면)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대각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을 결정한 지난 30일 임시 중앙총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서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대각사 3층 법당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원로회의 스님 13명 가운데 해암, 비룡, 도천, 용담, 도천, 원담, 지중, 고승 스님들 8명이 직접 참석



지난 12월 '쌀' 기초농산물을 지키는 일은 민족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입개방 반대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

갑오농민 백년 한이 갑술에 흐른다

갑오농민전쟁, 1백년, 갑술...

암울했던 조선 현대사의 아픔이 백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의 한이 1백년을 흘러 갑술년 제2의 독립전쟁으로 터져옵니다.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선조는 거리의 미래를 위해 무지랭이 손에 낫과 호미, 곡괭이를 들고 싸웠습니다. 죽창으로 숲을 이루어 싸웠습니다.

선진문명의 외피를 쓰고 들어왔던 외양선이 이제 UR을 타고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1백년전부터 조선을 불태웠던 '국제화'를 들이밀며 외세에 빌붙은 위정자를 앞세우고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흰옷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조국의 운명과 함께 하려는 열혈 청년들이여, 조국의 부름에 답하십시오. 조국은 청년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김영란(63)학우



세상에 등록금 1주일 미뤄졌다고 그만두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젊은 열기에 '좋다 나도 필요없다'하는 맘에 독일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40년동안 가슴에 한으로 남을 줄이야.

그저 동국의 '동'자만 들어도 그렇게 분하고 화가 날수가 없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 한번 들른적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나옴까지 교정에 나무하나하나 건물하나하나가 다 날벼락 같고 여짜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러던 중 얼마전 TV를 보는데 유성환씨가 하는 분이 나와서 복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당장 그분께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학교까지 나뉘는 달려왔죠.

지금요? 지금은 너무나도 좋죠. 마냥 좋아요. 학교 직원선생님, 교수님 모두모두 그렇게 친절하고 극진하게 대해 주실수가 없더라고요. 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느냐면서 마치 자기일처럼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휴 그들의 원수같은 눈물이 왜그리 나오는지.....

제가 법학과 52화번이고 4학년 2학기때 그런 일이 생겼으니 만 40년만이지. 젊은 후배들보니 좋아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모습들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일들도 하고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어요. 이제와 무슨 석사, 박사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못다한 공부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신촌역 앞 캔 차이나에서 (허동혁 기자)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문화면 청탁기사의존
독자와의 거리감 느끼게

지난 1145호 신문에서 아쉬웠던 점 3가지. 첫째, 2면 여론대제면의 '동국인의 성인식도 조사' 그 주제가 제도언론이나 주간지에선 다루었던 내용으로 이미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식상했던 여론조사였다고 생각된다. 좀더 심도있고 학교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가령 이번 등투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학교편의시설(서점, 식당, 휴게실)의 만족도 등.

둘째, 취재면 7면의 총학생회및 각단체출범식 기사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독자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했던점. 취재기사의 성격상 사실보도에 치중하는 면을 감안해도 각출범식의 특성 정도는 다루어줘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손과담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신도 일에도 불구하고 고정칼럼을 제외하더라도 문화면의 경우 거의 청탁기사에 의존해서 독자인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던점 또한 아쉬웠다.

김필중 (법정대 법(0)학과·본사 모니터)

'성인식도' 여론조사
정확성·연관성 아쉬워

지난호(1145호) 이달의 여론조사면에 게재됐던 두 문항, 즉 남녀 흡연과 결혼전 순결에 대한 물음이 동국인 '성' 인식도 조사라는 큰 제목 아래 있었다.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글인데 살펴보면 제목과 제기한 문항과는 거리감이 있었고 도표에서도 정확성이 부족했고 조사결과와 사회에서의 상대적 연관성에 대한 마무리도 부족했다. 쓰는 입장과 읽는 입장에 있는 각각의 풍악인에게 만족감을 주진 못했다.

또한 3면의 사실란에 다루었던 글은 문민정부의 허상, 그리고 대학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루과이라운드(UR)문제였다. 우리들은 UR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략 알기는 하면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지 학내에서 큰 정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4월8일 국회의원 지지투쟁과 그 이후에도 소수가 참여하는 집회보다 범동약적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남궁원 (농업경제학과·본사모니터)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80-3491-2 (0661)770-2057

이제는 현실을 돌아보는 정신적 재우장의 시기

이젠 이미 지나가버린 지난 겨울을 되돌아 보자. 통일일꾼 문익남 목사님과 노동해방 혁명전사 김남주시인의 죽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절망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두 노동자. 신문과 TV에선 이미 과거의 옛 그림자로 남아버린 시위모습과 재야 단체들의 침묵, 혁명 포기를 선언해버린 재야인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이미 옛 소련의 붕괴에서부터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인적전 물음은 아니었을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었고 역사를 이루어 왔다. 그것을 지탱시켜준 힘을, 나는, 사람에 대한 끊임 없는 신뢰와 열정—지성과 의지—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이란 친근한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뜻 가운데 미약할수 밖에 없고, 화해할수 없는 집단도 있음을,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구체성을 얻어야 함을 잊어서 안되겠다. 학생으로서 아무런 책임이 어렵다할지라도 단지 취업을 위한 공부만은 아니어야겠다. 누구의 편에서, 누구와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만큼 울곧게 지켜나

가야겠다. 스스로에게 메달라가는 사회의 뜻을 집지못해 외로움으로 고단한 삶에 동화되어선 안되겠다. 지난 한 해, 새정부의 다소개혁적 성과물들은 그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민족의 피와 죽음으로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것마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함은 수차례의 본봉투사건, 국가보안법, U.R, 노동법 개정연기—이는 반드시, 꼭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학우들을 위해 충분한 의견제시 시가 있었으면 한다. 북한핵 문제 등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민족의 힘이 일어설아하는 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야 단체의 자기 반성과 '변화된 여건'속에서의 투쟁의 모습들이 겨울을 견뎌내고 새롭게 일어설아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북에 대한 준비가 가일층 필요한 것이다. 교내에도 많은 운동단체들이 있다. 감히 말하고 싶다. "젊은이여 조직하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그들의 개개체로서의 모습이 아닌 단결, 연대의 모습으로 모든 학우들 앞에 나타내기를. 그들의 철학과 역사, 노래, 민족의 슬픔, 삶에 대한 열정을 모든 학우들에게 충분한 문제제기와 대화를 통한 어울림으로 엮여지기를 소망한다.

지금의 우리에게 생활·투쟁·학문 삼위일체로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세가지의 동시적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강철규—강철같은 규율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 인식은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며, 이는 과거 인간의 유용노동의 결과물—세계 객관적 반역으로서의 문화, 문학적 제 결과물—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다. 시간과 투쟁가운데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과 토론의 모습들이 주인된 모습들로 당당히 보여지기를 소망한다.

모든 것에 회의하라. 아직 우리의 봄은 오지 않았다. 늦봄까지, 노동 해방의 그날까지 우리의 절에서 지난 열정의 합성소리와 함께 앞서 떠나신 두 분들을 과거 아닌 현재로써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아직은 편한 맘으로 보내드릴수 없다.

4월의 합성에 귀기울여 보라 무엇이 들리는가?

강철규 (상경대 권경과)

은방골 물가조절의 노력 학우들의 인식변화로부터

아침 감성에서 일어나오며 문득 버스정류장에 학생들이 가득 서있는 것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아 거리를 통학하는 젊은이들은 물가 상승에 실망감을 금할수 없었다.

다른 대학보다 자취생이 많은 문방골 학생들은 일반 서비스 가격 체감 인상을 받다 두배 세배 더 무겁게 느끼면서도 그런 절박한 심정을 쓰고있지 못하다. 비단 이것 뿐인가 멀지 않은 곳

에 시장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하고 식사는 해먹기보다 식당을 이용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려 한다. 이런 안일한 학우들의 인식속에 총화의 물가조절위원회는 무슨 필요성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변화된 학우들의 사고에 부응하듯 은방골 주변의 물가 안정조절운동이 이루어져야 하지, 그러한 캠페인 한번없이 대담 물가만 인하해서는 안될 뿐더러 물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총학의 무의미한 행위는 어쩌다 한번 의식을 하려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 물가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살다시피 식당가, 술집등을 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 물가를 조정하려는 것은 아닐까 또는 보여주시기의 행사만을 열며해본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학우들이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인식변화를 할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려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분명 은방골 주변의 물가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만큼 학우들의 인식변화와 생활태도의 변화를 위한 학우들 각자의 각성 또한 필요하다.

물가조절과 학우인식변화의 공동 노력이 있다면 결코 물가조절위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정연운 (인문대 국문과)

총학생회의 개정을 통한 중단 개혁 이루어져야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의해 문제 제기된 상무대 80여명 비리사건은 현 조계종이 얼마나 정권과 유착되어 종교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준 구체적 실례이다. 광, 주영명의 뜻을 잇기위해 민족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상무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80여원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통해 돈세탁이 되어 김영삼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

다. 조계종내에서 젊은 승려를 중심으로 상무대 80여명 비리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무마하기위해서의 현총무원장은 3일이 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번 서총무원장 3일제지침 중단개혁투쟁은 단순히 서원장을 사퇴시키는데 머물지 않아야 한다.

서원 총무원장과 같은 사람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총무원장 일 개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종법·종헌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불교는 승가단의 정유물이 필수 없다. 불교는 사부 대중 즉 승가와 재가 불자가 화합하고 함께하는 그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이번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서의 현 총무원장의 사퇴가 아닌 서원장 사퇴와 함께 종헌·종법의 개정을 통한 중단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병진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조대 사진 落花

박승중 (본교 기획계장)

꽃은 계속 피어아 아름답다
꽃은 피면 지기 마련
한번은 꽃이었다 시들어간 젊음이여
먼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가 꿈들이여
바람으로 흩날린 꽃들은 말고
흩으로 돌아간 꽃들은 말고

... (하락)
- 꽃들 9

동/문/칼/럼

중단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학교발전 불가능해

동대신문에 다시 글을 신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나는 81년 3월부터 83년 9월28일까지, 그리고 85년 9월 부터 87년 2월까지의 시기 즉, 5공의 거의 전기간을 학생신문으로 보냈다. 이 기간 특히 81년부터 83년까지의 기간은 5공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교내에 정찰이 상주하고 학생활동은 노골적으로 억압 당했다. '동대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은 배포중지에 시달렸고 기사내용에 대한 간섭도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동대신문에 냈던 몇몇의 기고문은 20대 초반의 덜 다듬어진 열정 이외에는 애초부터 치기어린 줄문에 불과했으니 그나마도 원형을 알아 보기 힘들게 바뀌고, 때로는 다른 기사와 함께 문제가 돼 배포 중지가 되는 흔극을 빚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처한 위치 또한 '역세기

감'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변화를 겪은 지금 다시 '동대신문'을 대하는 감회는 남다르다. 내 글이 다른 지면과 어색한 외로움을 겪지나 않을까.

총무원장 3선연임을 둘러싸고 조계종단이 들쭉이고 사회전체가 따가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교의 설립주체인 조계종단의 문제인 만큼 나도 사태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한때 '동국발전위원회'의 동문대표로 참가하여 모교 발전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한 선배의 "조계종단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학교 발전은 이룰 수 없다. 더디지만 분명한 길은 승가를 변화 시키는 것이다"라는 언명은 지금도 타당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모교인 동대는 학원파행과 관련 현직총장이 수모를 겪는 충격적인 아픔을 겪었다. 작금의 조계

중단시대와 모교의 현실을 겹쳐 보면서 저런 이진투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의 개혁과 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희망의 연꽃이 피어났으면 하는 열렬적인 바람을 가져 보게 된다.

글로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동문은 포함하여)들은 이번 조계종단사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싶다.

강원구 (인문대 비서실장·사 87호)

목 먹 골

- 우리 예쁜 은희가 생일(8일)이다. 축하해주세. —경영전법준(89)
- 전자공학과 MT GO TO 낙산! 기념하며 —전자공학과 92 447
- 축하합니다
- 법학과 상선(5일), 경오(8일), 덕기(10일), 회철(10일), 성욱(11일)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4 法학우일동
- 혜경이 누나 늦었지만 동생이 생일축하해요. —92 선배가
- 새로운 사회연구회 발대식을 축하합니다. —92 선배가
- 영이영문학과 강연숙학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영영문학과일동
- 범호형 취직 축하해요. —농경과 제민클럽
- 성식이 형의 생일(3월31일)을 축하합니다. —92 선배가
- 정외과 성주(83)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92 선배가
- 경제학과 석원(88)이가 득남했습니다. —경제 88

동 / 악 / 광 / 장

- 우자운 생일축하한다(!) —전현·현정·은정
- 94새내기를 대상으로 '94인생 Work-Shop'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연극 공연을 통해 지금의 내가 아닌 또다른 나를 찾고 싶은 새내기 여러분은 학생회관 5층으로 오세요. —극 예술연구회
- 4월7일 오후5시 박상기 야구대회에 김도부가 출전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길 기원합니다. —237기 여느검우가
- 있었어요. 9월부터 대방의 프로 야구가 시작됩니다. LG파이팅! —'94 무역 LG팬이
- 독문과 시사반 열심히 합니다. —Km
- 제호(아)경영 '94가 벌써 군대 간데요. 서운해요. —4대여학생일동

알립니다

- 가락고와 동문회 조인트 하실 의사가 있는 女高 동문회는 다음주 동악광장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가락동문회
- 총학이 뭐하니, 학자투는 잠깐 자나? 중단개혁, 재단개혁, 학원개혁! 그것도 모르누나... —93 實張
- 물리학과 여러분 연합 MT 갑시다.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대성리로 지껄고 생각하지 맙시다. 꼭 같이 갑시다. —경제학과 학생회
- 애대풍물 신입생 환영회 합니다. 들고 싶은 신입생은 토요일 6시 문화페스티벌 오세요. —친구일동
- 김수아! 감성에서 생일상 차려주세요. —친구일동

은방골

- 축하합니다
- 4일은 우리 예쁜 영희의 생일이에요. 모두 모두 축하해주세요.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해·물 3기
- 지영이언니 생일 역시로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일어일문학과 안다리클럽일동
- 눈부신 4월에 태어난 민정, 윤희, 은진, 성훈, 그리고 소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요. P.S 식물 생리 화이팅 —생물 속독의 S·H
- 4월 5일은 수교과 3학년 풍다 리(?)류 인숙의 생일이결정요. 피름, 아주피름 축하합니다. 인숙이가 전해달래요. —자축은 절대 아님
- 명희! 생일 미리 축하? 항상 좋은 친구라 생각해. 더 이

알립니다

- 철학과 학회연합회가 드디어 출범! 모두모두 한마음을 이뤄봅시다. 4월 6일 A41에서..... —철학과 학회장
- 열심히 합니다
- 제9기 민경이, 호근이 앞으로 열심히 하길바라며 율한에 seven-Glass 모두들 열심히 음악합니다. —93 Mook Jean
- 한울 10기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참말로 기뻐요. —97기 웬 선배가
- 우리 후배 힘피하고 선행이 학교 생활을 힘피하세요. 힘내라고 전해주시구요.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전해주세요. —나
- 그리고...
- 이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내사랑 수진아, 항상 맑은 미소... 그리고 끝없는 우리 둘 사랑이 기쁩니다. —Bto
- 전·통이 M·T를 갑니다. 재미있거 추억에 남을 수 있는 M·T가 되기를... —전·통이
- 공부하자. 우리 모두 다 공부하자. —J-Club

4월로 접어들면서 온 대지에 봄의 파
로움이 완연하다. 황량하기만 했던 들녘에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의 움직임은
예전과 다를없이 부산하지만 농민들의 음
츠러든 어깨와 웃음 잃은 얼굴들은 국민들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
민들은 웃음을 잃고, 활력을 잃어 버렸을
까? 그것은 UR이라는 수입개방 농업발상
태풍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UR의 파고가 아무리 높다고 하
더라도 한나라의 농업생산 주체로서 이데
로 물러 설수만은 없다. 우리 농민들은 정
신을 가다듬고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내
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하지만 일어서는 방식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나 지금부터 살길을 찾자는 것으로 되
어서는 안된다. 무슨일이 있어도 농업, 농
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UR협상을 진행해
야 한다.

자주처럼 국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
은 요구하여 불합리
한 협상 내용은 고쳐,
생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쓰러져가는 농업을 발전시키
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는 이런 상식적인 방법을 버리고 반농민적
인 방법을 택해 최종이행 계획서를 낸 상
태이고 4월12일 모로코에서 의회 비준 중의
절차를 거쳐 UR협정을 이행해야 하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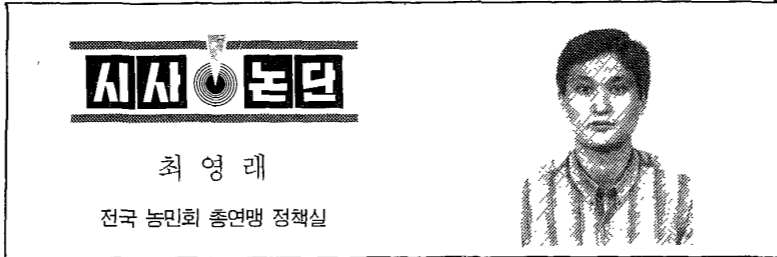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협상을 막기위해
모든 농민단체들과 야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
단체들이 국회비준 거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UR농산물 협상이 왜 부당하고
반농민적인가?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
자.

우선 정부는 "한 두 품목에 있어서 관세
화를 반대했던 국가들(일본 포함 7개국)이
모두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외의를 막
론하고 개방불가를 천명하였으나, 한국정부

가 가장 늦게 까지 개방불가의 입장을 견
지해 왔기 때문에 1백17개국의 1천3백여개
농산물중에서 가장 유리한 개방조건을 확
보했다"라고 쌀시장 개방에 대해 말한다.

쌀의 개방조건은 관세화를 10년 유예 하
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을 1~4%로 한것이
다.

그러나 쌀에 대한 협상의 내용은 정부의



최 영 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정책실장

생선이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켰다.
쇠고기, 신선감귤, 감귤, 돼지고기, 닭고
기, 참깨, 마늘, 양파, 고추의 BOP(국제수
지) 품목의 개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89년 가트 제18호 B항(국제
수지조항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수지
의 방어를 이유로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
해 수량규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한 조

관세(40%)를 부과하는 상한선정 양허방식
으로서, 합의사항에는 2001년에 전면 개방
키로 되어 있으나 95년부터 적용되는 쇠고
기에 대한 실효비협약은 사실상의 전면개
방에 해당한다.-을 수용하고 받았다. 돼지
고기와 닭고기도 95, 96년 2년동안 쿼터할
당방식으로 일부 수입하고 수입초과 물량
에 대해 상한선정 양허방식을 설정하는 준
관세화를 허용했으며, 이들 품목은 97년 7
월에 완전 수입개방된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도 97년 7월부
터 전면 개방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시장개방의 원칙조차(관세 상한치
에의 개방) 적용받지 못한 최악의 협상결
과인 것이다.

협상의 결과가 이러하기에 우리는 국회
비준 거부로 통해 다시 재협상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한편에는 비준을 거부하면 가트를 탈퇴
해야 한다는 말을 하
는 사람들이 소수있
다.

그러나 미국은 47
년동안 의회가 비준
을 거부했지만, 미국이 가트회원국의 자격
을 박탈당한 적은 한번도 없고, 가트탈퇴는
가트회원국 1백17개국의 만장일치가 있을때
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회비준거부 = 가
트탈퇴 = 국제고립이라는 말은 대국민 우민
화 논리에 불과하다.

국제조약 체결방식에는 각료 서명을 통
한 정부의 참여방식도 있다. 비준을 거부하
여도 위의 방식으로 가트에 가입하면 된다.
정부가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재협상은 어렵게 되었기에 국민의 힘으로
국회비준을 거부하여 세계최약의 협상, 글
욕적인 협상을 우리 농업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협상내용으로 바꾸어 내야한다.

농업이 망해 식량이 외국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자립적인 경제 발전의 길은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국회비준 거부로 협상내용 수정해야

UR농산물 협상결과 대응방향

뛰어난 협상결과가 아니라 원래 드니의장
초안을 기초로 삼고 있는 문체외부협정초
안(9.12.20)에 명시되어 있었던 내용(개도
국의 경우 개방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접
근 3~5%)과 대응소이다. 또한 일본보다
도 협상결과가 좋았다고 하나(유예기간 6
년, 최소시장접근 4~8%) 1~4%라는 수치는
발의미가 없다. 4%를 수입하면 96%는
우리나라에서 자급을 해야 하나 90년이후
로 쌀자급률이 1백%가 안되고 있는 상황
에서 그 수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수입
량은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입쌀을 국영무역
으로 관리하는 것을 협상결과로 얻어 국내

정) 원용준에 따라 97년 7월에 쇠고기
등의 9개 BOP품목을 실행관세율(20%)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는 "새로운 가트 규약이 생길 경우 그 규약
에 일치시킨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이
단서조항의 명시를 가트에 요구했을 경우
실행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관세상당치(쇠
고기의 경우 3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수입쿼터할당 및
실효비협약(Ceiling Binding) - 수입쿼터 물
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율을 부과하고, 이
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상
당치보다는 낮고 현행관세율보다는 높은

도서관을 진단한다 - 분실사고 대책은 없는가 ④

근시안적 학교행정·말많은 총학, 도난사고의 원인중 하나

피해보상규정, 신고처 마련과 전 동국인의 공동체의식이 해결책

도난당한 학교행정

도서관 도난사고의 개연성을 조
금은 줄일 것으로 보였던 바코드출
입기는 1년도 되지못한 지금에 와
서는 고장과 수리를 거듭 하다가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다.

절제할 외부인 통제도 도난사고
방지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 기계는 처음부터 계기결합을 예
상할 수 있었던 저가품이었다. 도
서관 관계자들의 전연처럼 적은 예
산 탓으로 이유를 돌리기에선 석연
찮다. 설치담당 학생들의 요구에
맞이겨 서둘러 장비를 갖춘 임시방
편적 성격이 짙었다. 모든 학교행
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안일한 행
정처리'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일이
고 보면 도서관 도난사고의 원인중
하나의 계기 고장보다 장기적 대
안을 갖추지 못한 학교행정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제25대 총학생회와
학교당국이 진행했던 도서관공청회
자리에서 당시 기초실장은 도서관
예산을 전폭 증액했으나 '기대하라'
고 발언했다. 92년: 2억4천5백만원,
93년: 4억3천1백만원) 이후 도서관에
는 환풍기 20여대가 개보수되고 조
명 1백여개가 신설됐다. 거기다 바
코드출입기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
그것으로 지난해 학교당국이 생각
하는 '도서관 혁신'은 일단락지어진
것이다.

매년 학생들은 도서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학교당
국은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
임하기 바쁘다. 그러나 도서관 직
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대충업무만
으로도 버거울 지경인 것을 아는지
모를 일이다. (현 도서관 사서: 21명,

법정인원: 66명-93년 본교 도서관
공청회 준비위 조사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에서 밝힌 보관소
에서의 분실사고는 근시안적 학교
행정에 탓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총학, 무엇하나
최근 몇몇전부터 대학 학생회에
는 근거지 대중운동이라는 명목으
로 학생들의 생활, 학문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말(?)을 해왔다.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
서관 개혁이었다. 건전한 도서관
문화와 학교 당국의 장·단기 발전
안 수립을 요구하며 수많은 말잔치
를 벌였건만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
진 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도
난사고로 신문에 제보를 계속하
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러한 학생회
와 학교당국을 겨누고 있다. '매우
기 살리기 운동' '열렬실 북도금'

'유지버리지 않!' '복지시설확충'
이같이 도서관 살리기운동으로 학
우들의 의식개혁을 부르짖지만 여
론수렴을 통해 실천하는 일은 없
다. 도난사고를 당해도, 도서관의식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해도 집
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총학생
회'는 없는 것이다.

구태여 92년 시험기간중 부족한
외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꾸려져
이후 '자립제도' '금연운동' 등 의
식개혁운동과 학교당국과의 도서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연례화된 회
의를 운영하는 Y대의 도서관 사
랑 지원단의 예를 들지않더라도 쏠아
지는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을 효율
적으로 해결하는데 학교당국과 호
응을 맞출 학생회의 실천방도마
련은 중차대한 문제다.

도서관 개혁은 '우리'
도난사고 책임은 '우리'

현 도난사태는 근본적으로 학교
당국의 저급한 문제의식수준에 있
다.보양의 사해에서 처럼 물품보관
소에서의 분실에 책임지려면 도난
사고 신고처와 피해보상규정등을
마련해야 하며 바코드출입기의 현
실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학생회는 보여지는 성
과에 매몰돼 이런 열람실 개방시간
연장은 총학투쟁의 성과물은 아니
다는 도서관 문제해결모임이 아닌
적극적이고 준비있는 내용으로 학
교당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전한 도서관문화
를 위한 전 동국인의 공동체의식을
갖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혼자만
일고 여이려면 지킬 수 없다.

박 수 로
(보사 전 편집장)

제보를 받습니다!
본사에서는 도서관 분실사고 사례나
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화나 본사로 연락주세요!
Tel: 02)260-3491~2
0561)770-2057

사설

진정한 UR책임자는?

김영삼 농림수산부 장관이 우르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전직 해임됐다. 또 이회창 국
무총리는 지난 5일 오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사전선거운동 시비, 조계사 사태, 북한핵 문제
를 둘러싼 정부내의 혼선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수로 볼수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1년을 전후해 나타난 크고 작은 고위공직자
들의 실책에 관련자들에게 대한 문책을 망설여 오던 김 대통령은 화
살이 자신에게로 모아지자 특유의 정면돌파 방식으로 김장관을 해
임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
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대두된 이행계획서 수정파동 이후 재야, 학생 및 농민단체 등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계획하는 등 우르과이라운드 비준 반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장관을 해임해 이러한 반발 움직임을 잠
재우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행계획서 수정이 농림수산부 장관 개인의 실책이라는 차이를
넘어서 김장관 전체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들어서는 김장관의 전직책임이라는 카드로 정치정정화를 막고 정
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장관의 해임은 오래전 부터 거론돼왔다. 김장관 해임이
라는 대원칙을 세워둔 상태에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에서
해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전환 효과의 극대화를 연출했다는 분석
도 가능하다.

김장관 해임과 관련한 정치적 연극과는 별개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무능력 함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지 않을 수 없다. 대외협상의 주요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서 및 담
당자들의 전문성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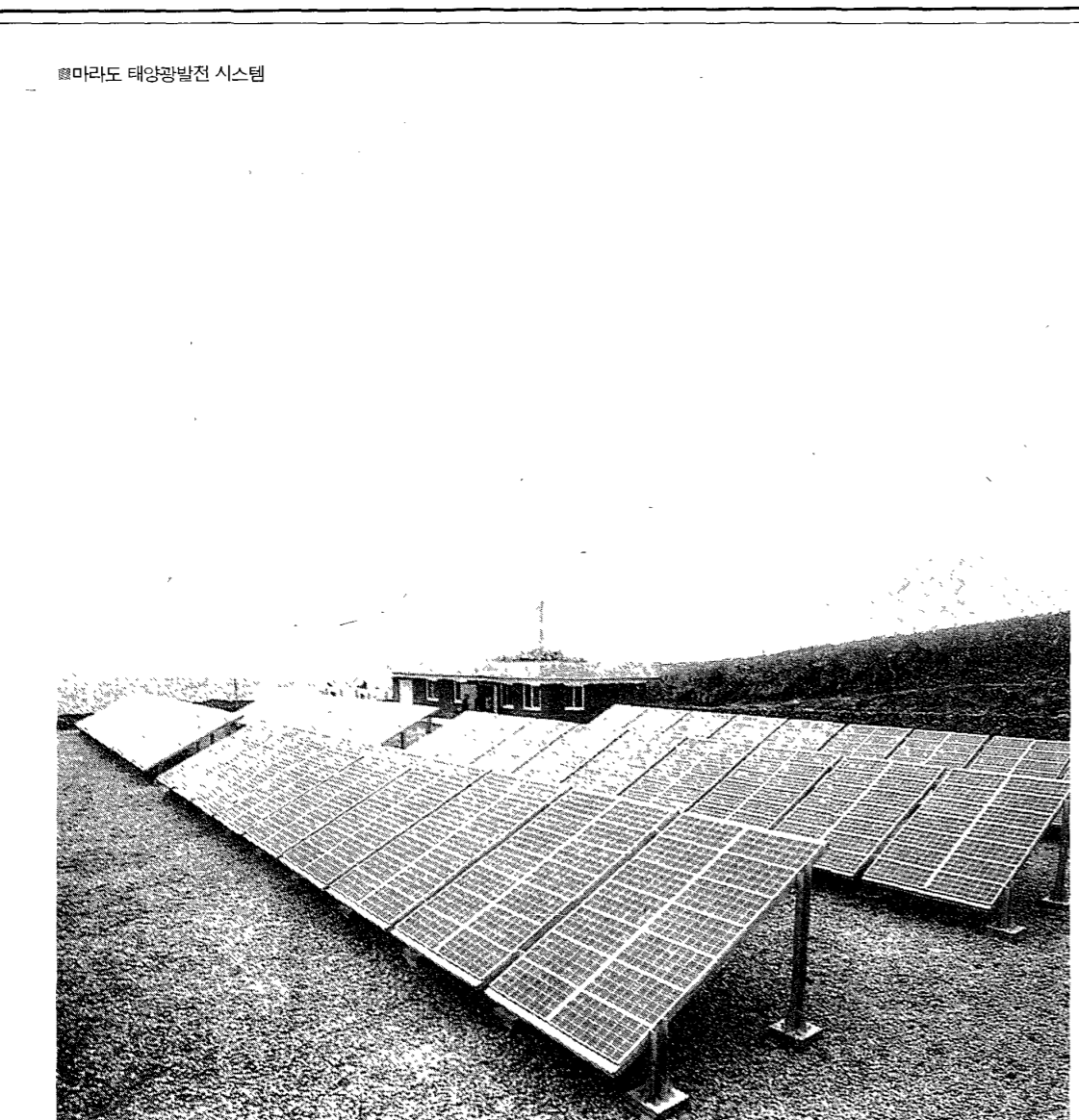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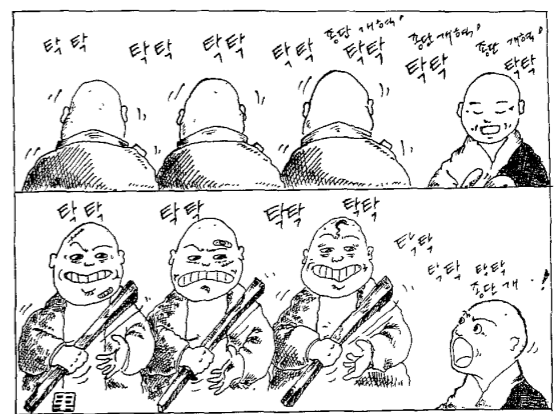
협상이 진행되는 지난 7년간 농림수산부의 관련국장이 7차례나
바뀌었다. 또 부서의 담당자는 5명, 그것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결
국 실무상에서 지속적으로 협상과정을 진행해온 사람은 한두명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 다년간 협상에 대한 기존의 경험
이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 블
루라운드등의 다년간 협상에서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야흐로 정국은 썰렁국이다. '한 자 한 획'도 고칠수 없었던 우
르과이라운드 협정안이 수정되면서 농민들이 격앙돼 있다. 민주당
은 장외투쟁을 결의했다. 한총련은 동맹투쟁을 결의했다. 민자당은
정국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
기고 해임시켰다. 여론의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 그러나 이 문제의 책임을 지어할 사람은
따로 있다. 대통령직을 걸고 실패한 막대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장관 한 사람을 바꾼다 해서 절망과 분노로 끓어오르는 농
민들의 마음은 달래질수 없을 것이다.

동국만평

김상남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우주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태양은 에너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약 3.8 × 10²³ kW정도이며 이 가운데
지구상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연간 약 1.6 × 10¹⁶ kWh로서 이는 세계 1차 에너지소비량의
약 15,0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태양광발전이란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인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연료·무공해의 직접발전방식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도서 지역과 산간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미 1991년 최남단 마라도에 30kW, 1993년 충남 호도에 100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주택 및 대규모 전력공급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팀은 이 무한대의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품질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 국민문화생활과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21세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SPS : Solar Power Satellite)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태양광 연구팀
책임연구원 임영철
선임연구원 황인호
연구원 임교상

수사당국 미온적자세 의혹 증폭

상무대 사건 진상규명...김정권 도덕성 타격

서원장 사법처리 가능성

상무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서원헌 조계종 총무원장의 3선 중임 시도로 시작된 중단사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사당국의 태도

조계종 폭력사건의 수사를 과연 경찰이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기는 서원헌 현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경찰이 평소 유난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것은 이번 3.29법란때 경찰이 취한 불공정한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틀데만 중단분규에 경찰이 엄청난 규모로 개입한 것이라든가, 수습과정에서 폭력성 방에 대해 똑같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강권을 행사하고 한쪽만 연행 구금했다든가, 폭력사건의 장본인인 조계종폭력배들을 단 한명도 구속하지 않고 이들의 폭행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의 수사 기피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우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종로경찰서는 사건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에 이미 폭력배들이 서울 호텔등에 집단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폭력배들이 일을 치르고 호텔로 돌아간 직후 경찰관이 호텔에 와서 이들의 투숙사실과 총무원측 승려가 투숙을 알선한 사실도 모두 파악한 상태였다.

이러한 면을 불태 이번사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조계사에서 중단개혁을 요구하던 승려들을 강제해산시켜 서원헌 총무원장의 3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권력일 것이다.

종단내 문제에 공권력을 끌어 들인 서원장의 태도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외부세력의 침입도 아닌 종단내 분쟁에 공권력이 개입해 어느 한쪽을 두둔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은 결과적

으로 공권력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서원헌 총무원장에 대한 수사 여부

조계종 총무원 폭력배 동원사건을 계기로 서원헌 총무원장에 대한 수사 여부와 수사를 할 경우 그 범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상무대 이전공사 대금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집단폭력을 사주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에 대해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진전되면 서원장의 지시 여부, 동원자금의 출처, 중단비리, 정치자금 제공 및 권력승리의 유착등으로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단계에서 예상되는 수사 범위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피중인 무성 스님이 잡히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폭력배 우두머리급 몇명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수사당국은 총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더 많은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둘째, 어떤 식으로든 이번 폭력사건에서 원장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서원장이 사법처리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수사당국은 여론으로부터 중단비리나 정치자금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단비리 일부에 대한 혐의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측은 "종교계 비리는 돈문제가 핵심이고 범죄가 된다면 형평성있게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해 내부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넷째, 수사당국이 서원헌 원장의 정치자금 의혹까지 수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사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부분은 현 정권의 도덕성과 존엄기반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찰을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인 최영우 내부부장관이 서원헌과 "보통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번째 단계 이상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무대 사건 진상규명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동화사 재무담당인 선훈 스님이 지난 4월 양심선언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에 시주했다는 80억원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따라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무대 공사비용의 정치자금화 의혹사건은 선훈 스님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앞으로 조계종 폭력사태를 둘러싼 정치권력의 유착 의혹과 함께 정치권에 엄청난 파

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그동안 상무대 공사비용의 정치자금유용 의혹사건은 민주당의 끈질긴 추궁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와 우루과이월드 문제, 사전선거운동 사건 등에 묻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선훈 스님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와 정치권 전반이 관련된 정치쟁점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계종 폭력사태의 본질도 따지고 보면 보시금의 정치자금 제공에 따른 종교와 정치권력의 유착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할 수 있다. 서원헌 총무원장이 상무대 공사관련시주금의 정치자금화 의혹문제로 불교계 안에서 궁지에 몰리자 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총무원장 3선 연임을 조기에 강행하려다 무리수를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조계종 폭력사태의 해결방안은 단순히 서원장의 사퇴로 끝낼 사안 이 아니라 불교 시주금의 정치자금 유입을 철저히 파헤쳐야 하며 앞으로 불교계와 정치권력의 부정한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원헌 총무원장은 동화사 시주금 80억원에 대해 처음에는 "시주받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밝혔으나 3선 연임 이후에는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청우종합건설 회장이 국방부와 경찰에서 일관되게 80억원을 동화사에 시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화사의 실질적인 주주자 서원장을 들어 이 돈이 서원장을 통해 정치권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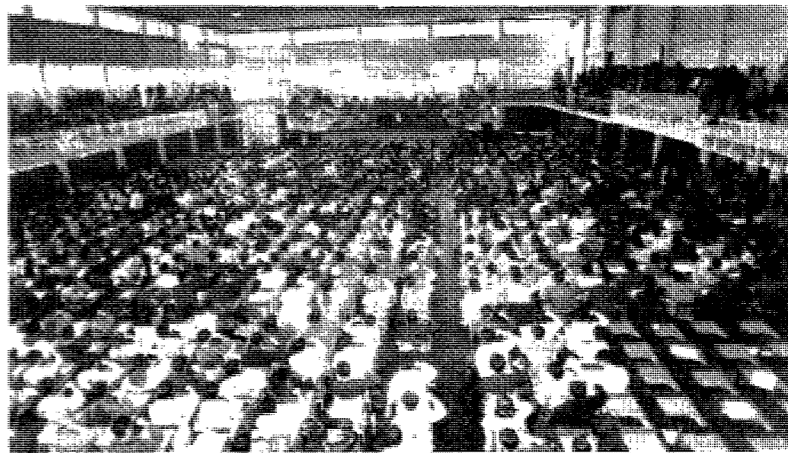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원헌과 조 회장이 지난 대선때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에 지원한 금액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서원헌과 상도동계 측근인사들의 친분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원헌과 불교신도회장인 조기현 회장은 지난 대선 때 기독교인인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불교계에 공백을 때 일장서서 김영삼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다녔다. 서원헌이 또 서서적 전 의원의 일본 출국 때 공항까지 나가 배웅을 하고 최영우 내부부장관이 이들의 부정일화 파문으로 속초에 내려가 낙산사를 드나들 때 여러차례 찾아왔으며 최 장관의 부친상 49재를 주재하는 등 상당 동행 인사들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과 불교계에서는 이번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 불교계의 정치자금 내역을 파헤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가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어서 이의 진상규명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석중 기자)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다녀와서 변화에 따른 자기혁신 필요



◇제2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부산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치러졌다.

전대협 6년의 역사를 거쳐 민족자주의 애국주의 가치를 걸고 제2기를 맞는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지난 1일부터 3일 사흘간 부산대에서 열린 '한총련 제2기 전국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궤도에 올랐다.

'94년 올해를 백만학우와 4천만 국민대중의 단결을 실현, 운동의 대추를 이끌어 자주·민주·통일의 구체적 대안 구축의 해로 천명한 한총련의 이번 대의원 대회는 김영삼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난 학생운동진영의 침체 극복을 위한 모색과 대안 제시의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실제 사업내용과 조직운동에 있어 현 정세 및 학생사회 전반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체의 개혁'을 제기하기도 했다.

첫째날 1일 노래대 회담세 탄압 폭로와 반미투쟁등을 주제로한 문화공연과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회 23일 부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 학생회 직선간부 및 각 부문계열 대표등 약 1천7백명의 간부중 1천2백여명이 참석, 강령 및 규약개정, 총노선 토론 및 확정, 의정선출 및 운영의 순으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기존의 지역 총련중심의 조직의 여성-연령-종교등 부문계열의 전국 조직대회를 한총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규약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어진 총노선 토론과 확정에서는 총노선의 총적 목표에 대한 의견차에 의한 표결이전 반대 의견의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제2기 한총련의 총적 목표는 크게 정치·목표로 '△반미투쟁 강화 △김영삼정권 타도투쟁 현실화 △남북민족화해와 단합의 토대 마련을 사상적 목표로 △개인의 자유, 이기주의를 극복 공동체 의식 확립 △애국주의의 이념 보편화를 제시했다.

또 △학생회의 대표성, 공개성, 책임성 고강 △조직의 통일단결을 조직적 목표로, 대중운동적 목표로는 △쌀수입 개방 반대 △통일운동 발전 △대중 의견제진과 참여에 기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종욱군은 총노선 토론 발의에서 "외세의존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지도 이념으로서 '백만학우 중심사상' 민족자주의 애국주의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이 상을 구축, 현 정세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총노선 반대 의견

으로 돌아대 총학생회장 박희준군은 "한총련이 더이상 정치적 목적에 매몰돼 다양하고 진보적인 학우들의 견해를 지도이념으로 묶어내는 것은 대중조직 연합체로서의 위상에도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운영의 공개, 민주적 의견수렴보장, 대중조직으로서의 개혁등으로 요약된 총노선 반대이견이 활발히 제기된 가운데 총노선 의결 투표직전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영채군은 '사상적 차이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이념과 총노선에 대한 반대표시로 집단 퇴장을 밝히며 대의원 1백60여명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진행될 범청학원 사업보급등 본회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후 의정선출에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한 기권자를 제외한 9백89명의 대의원중 8백20표의 지지를 받은 임시의장 부산대 총학생회장 김현준군이 제2기 한총련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의 전화를 통해 학생운동의 강화를 시도한 제2기 한총련은 그러나 이번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시계적 변화에 따른 자체개혁의 과제를 풀지 못한 한총련의 기존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대의원 대회중 한총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를 비롯한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은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단결을 통해 한총련의 조직운영과 사업진행의 새로운 변화, 혁신을 촉구했다. '진보'의 구성원인 서울대 총학생회장 강변영군은 "올해 한총련 핵심투쟁목표는 '쌀수입 반대투쟁을 통한 현정권 타도' 투쟁을 현실화하는 고된만이 일상화되고 있음 현재의 대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한총련은 자신의 활동내용을 대외에서 찾는 학생대중 조직으로서의 강화를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에 있어 이전의 전대협이 차지한 위치는 크다. 이전의 성과와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총련은 현정세와 학우 대중의 변화에 따른 자기혁신의 과제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대의원 대회 기간중 제기된 중앙집중적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학우대중의 정세에 기초한 사업진행의 지적들은 진정한 1백만 청년 학도의 생활·투쟁·학문의 공동체를 나아가기 위한 한총련의 숙제로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또다른 산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재환 기자)

동역로

자치회비 공개

"1년동안 사생들이 내는 기숙사 납부금은 8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 이자만 하더라도 8천만원 정도가 되죠.

이런 액수를 아무런 예·결산 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감과 사감보의 관리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94년도 예·결산 공개와 자치회비의 자치위원회 귀속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금강학사 남자 사생상 이재원(경영 3)군의 말이다.

매년 문제제기된 납부금 예·결산 공개는 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할 때마다 기숙사측은 "사생여러분들은 선택 되어졌습니다. 좋은 시설과 환경속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해 문제를 제기합니까?"라는 고압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기숙사 사생들은 한화기담 관리비 18만원, 자치회비 1만원, 그리고 매달 7만2천원의 식비를 내고 있다.

이중 관리비와 식비를 제외한 자치회비만 보더라도 1년에 1천6백만원 정도의 적지않은 액수가 거둬진다.

"자치회비를 피박외박 내는데 쓰이

는 용도정도는 알고 내야죠"라는 어느 한 사생의 말은, 1년 동안 오픈하우스와 체육회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쓰이는 것이 없는 자치회비에 대한 많은 사생들의 당연한 의문이다.

전국 대학기숙사중 80%가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기숙사에서 자치회비를 자치위원회가 아닌 사감과 사감보가 관리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학교 뿐이며 납부금 예·결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학들도 많다.

오픈하우스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마찰로 여자 사생상 이재원(관경3)양이 사퇴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사생들의 납부금 예·결산 공개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는 남자 사생상은 말을 잊는다.

"사생들은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시설과 환경을 잘 갖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숙사측은 말하지만 정작 사생들의 당연한 알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영 기자)

공 고

4.19기념 제25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994. 4. 16(토) 09:00~18:00
- 장 소 : 북한산(4.19기념탑→대동문→북한산장→북한산성유원지)
- 부 편 성 : 교직원, 재학생, 동문부, 종립학원
- 접 수 처 : 학생처학생과
- 접수기간 : '94. 4. 8(금)~4. 15(금)
- 조 구 성 : 4명(조장 1명, 조원 3명)
- 참 가 비 : 1천5백원(₩5,000)
- 참가서류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조장회의 : '94. 4. 15(금) 16:00 본관내 중강당

학 생 처 장

춘계명찰순례안내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도심의 짜든 삶을 떨치고 함께 진한 계절의 내음을 찾아 떠나 봅시다. 고찰의 경관과 문화유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명찰순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장 소 : 공주 마곡사, 철갈산 장곡사, 낙화암 고란사
 - 일 시 : 4. 29(금) 15:00, 도서관앞 출발 4. 30(토) 19:00, 본교 도착
 - 참 가 비 : 5,000원
 - 참가대상 : 학생, 교수, 직원
- *90명에 한하여 신청순으로 접수함(교수, 직원은 20명 이내)
- 신청접수처 : 학생처 학생과

정 각 원 장 학 생 처 장

'94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 1학년(○○○○명), 2학년(○○○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1학년(72. 1. 1~78. 1. 1 출생자) 2학년(71. 1. 1~77. 1. 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94. 3. 10~4. 30(학군단 본부)
 -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실제검사)
• 지원서(사친첨부) 및 서약서.....각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각1부
•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각1부	•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각1부
	• 사진(4×5cm).....3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면접, 체력검정
 - 2차 : 실 제 검 사
 - 합격자 발표 : '94. 8. 10
- 특
 - 학군후보생 지원 『가』접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 군 본 부

공 고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회에서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어학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분 야	교 재	요일 및 시간	담 당	연락처
대학원영어	The Poverty of Historicism	금요일 오후6시	김종갑 (영문과 석사수료) (김종갑)	260-3085
대학원일본어	미 정	일요일	최은희 (일문과 석사 수료)	260-3085
대학원독일어	BOll's Erzählung	수요일 오후5시	정영아 (독문과 석사과정)	260-3085 (정영아)
학부영어 1	미 정	월요일 오전10시 수요일 오후5시	박민미 (철학과 석사과정)	260-3085 (김종갑)
학부영어 2	미 정	화요일 오전9:30 목요일 오후2:30	박민미 (철학과 석사과정)	260-3085 (김종갑)

*모집기간 : 4월 22일까지

대학원인문사회과학연구회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경제UN기구라 할 수 있는 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는 국경없는(borderless)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어 들게 되었다.

여기에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부터 금융기관들도 국제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다.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금융기관들까지도 도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루과이 협상'의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개방폭과 속도를 알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개방일정표는 3단계 금융개방계획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 금융개방계획일정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규제조치의 동결(Standstill)이다. 현존하는 규제조치의 동결(Standstill)이란 일단 금융규제를 풀기로 한 이후에는 다시 종전의 규제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93년 11월 1일을 기해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이제 다시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무효화하고 과거처럼 금리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규제조치의 동결'의 핵심이다.

둘째, 외국의 은행, 투신사, 투자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때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인가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금융 시장도 예외 아니다'

열리는 금융시장...금리자유화·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필요

첨단 정보시스템 효과적 도입·선진 금융기법 터득 급선무

게 되었다. 과거에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일정한 인가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국내에 사무소나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3단계 금융개방계획의 일부로 '우루과이라운드'금융협상 최종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96년까지 상당부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주식투자를 할 때 국내거주자인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외국의 주식투자한도를 96년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은 내국인(內國人)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외국인에게도 국내의 주식시장을 활짝 개방하기 때문에 선진투자기법을 앞세운 외국금융기관들은 주식투자에 열을 올릴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95년까지 외국의 투신사·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신락의 통화채인수비율을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양도성에금융서(CD)의 발행한도와 만기를 95년까지 확대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 봐두어야 할 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금융신상품의 도입 허용'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규모는 무려 9355억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품시장은 가장 유망한 금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고도의 금융기법을 자랑하는 선진금융기관들은 전체 수입의 약 25%정도를 새로운 금융상품시

장(신금융상품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의 금융기법을 갖춘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신금융상품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융상품시장에서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활짝 열리고 있다. 금융시장이 계획대로 개방되면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금리자유화가 더욱 진전되고 금융개방이 본격화되면 이제 일부의 금융기관들은 도산할 수도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수익기반은 약해진다. 수익기반은 약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일부의 금융기관들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활짝 열리는 금융개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

째, 국내의 금융기관들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명실상부한 금리자유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완전자유화해서 금융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규모가 작은 몇개의 금융기관들을 통합할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금융서비스의 평균비용(average cost)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경쟁력은 높아 질 수 있다. 그런데 컴테기만 크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규모를 크게함과 동시에 첨단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금융기법을 빨리 터득하도록 하고 금융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증대시켜야 한다.

현재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기법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

제금융기법에 있어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빨리 선진국의 국제금융기법을 습득하도록 해야만 한다.

금융의 생산성에서도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생산성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규모가 작은 몇개의 금융기관들을 통합할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금융서비스의 평균비용(average cost)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경쟁력은 높아 질 수 있다. 그런데 컴테기만 크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규모를 크게함과 동시에 첨단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금융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도록 해야만 한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진입제한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더욱 넓게 열리고 있는 금융시장의 토양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금융기관들의 자율성을 더욱 높일때 국내 금융기관들은 외국금융기관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현제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기법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

권 오철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거서 경제학)

과학 에세이 봄의 별자리

별자리 전설...인간 삶의 과정 내포

처녀자리, 스피카의 청초한 아름다움

별, 태양...우주 결코 생소하지 않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본 사에서는 동국인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해 이번호부터 과학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당신은 아마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안개 자욱한 동안을 내려온 기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안개 사이로 고요히 빛을 내는 별들을 우리는 그저 말없이 감상하게 되는데, 그렇게도 매서웠던 겨울이 봄의 설주자인 힘센 사자의 울음에 놀라 겨울의 별자리는 어느덧 서쪽으로 달아나 버리고 밤하늘은 다시 단장한 봄의 별자리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 중앙도서관 왼쪽 사잇길에 드러난 활트인 도시의 지평면 위로(동남쪽) 밝은 1등성 하나가 낮게 떠서 빛을 발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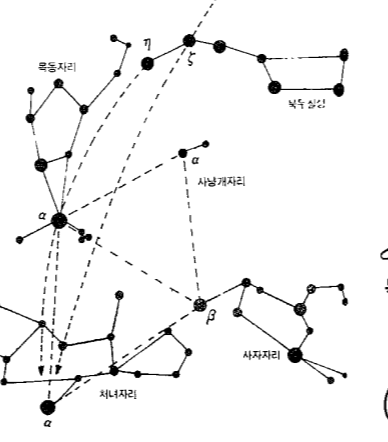
이 별이 바로 처녀자리의 으뜸별 스피카(Spica)이다. 어떤이는 스피카의 하얗게 빛나는 청초한 아름다움에서 이 별자리의 이름이 처녀자리가 된 것이라 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처녀자리의 오른쪽에는 옛날 그리스의 네메아(Nemea)골짜기에 떨어진 유성이 변하여 여인 '7'를 거꾸로 한 것 같은 모양의 포악한 사자가 있고 그 옆부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한 아르카스

(Arkas)의 별자리인 목동자리가 있다. 아르카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많은 고생을 겪다가 드디어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하여 농사 일에 새로운 기원을 이루게 했다. 그가 죽은 후 농사에 대한 그의 꿈을 높이 평가한 제우스는 그 쟁기(북두칠성)와 더불어 아르카스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별자리의 전설은 바로 처녀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토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의 딸 페르세포네(Persephone)에 얽힌 이야기이다.

어느 맑게 개인 가을날 지하세계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가 땅위의 목수 수발을 거닐고 있었다. 하데스는 마침 그곳에 나와 있던 여인 페르세포네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마차로 납치했다. 땅의 갈라진 틈을 통해 자신의 지하세계로 내려간 하데스는 거기서 그녀를 강제로 아내로 맞이 했는데

그녀가 지하세계로 납치된 후 딸을 잃은 토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슬픔으로 인해 큰 비탄 속에 빠져 버렸다. 그와 함께 땅은 메달라 갔고, 들에서는 곡식이 이삭을 패지 못했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는 땅이 황폐해 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하세계의 왕인 자신의 형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이들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었다.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일 년의 반동안만 지하세계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반 동안은 지상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이면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지하세계로부터 동쪽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후로 겨울에는 추위가 닥치고 풀이 돌아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지하세계에 있는 딸을 그리워하여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 봄이 와서 땅 속으로부터 페르세포네 즉, 하늘의 처녀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데메테르의



컴퓨터 이야기

멀티미디어

응용기술개발보다 응용자체 제작이 과제

"멀티미디어 컴퓨터는 소리, 문자, 이미지, 그래픽으로 표현된 21세기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컴퓨터의 발전속도는 점점 무한대로 향하고 있다. 신개발, 신상품이 채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밀려날 정도로 기술 개발의 속도가 눈부시다.

최근 들어 멀티미디어란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의 개념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만한 용어가 바로 이 멀티미디어이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림, 사운드, 움직임 등 영상등을 통합조정하여 다양한 시청각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운드,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등 종합적인 기술이 총동원되는 것이 멀티미디어 제작이다.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더불어 중요한 개념이 몇가지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는 두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는 다양하고 적절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청각, 시각 등 여러 감각을 끌어 들임으로써 학습효과 및 기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컴퓨터의 환경을 현실세계에 가깝도록

이끄는 것이 멀티미디어 개발 방향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멀티미디어 타이틀(제작된 상품을 이렇게 부른다)을 보면 교육, 리지니스, 오락 등의 분야에서 그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구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자를 제외한 다른 매체를 한 곳에 담을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다보면 자연 용량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응력을 간단히 저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CD-ROM이다. 보통 2HD디스크 500여개의 용량과 맞먹는 600MB정도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용도에 매우 적합하다. 요사이 CD-ROM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문자처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와 같은 미디어의 처리방식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다양한 미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응용기술의 개발보다 응용 자체를 제작하는 일이 더 큰 과제다. 멀티미디어의 제작과정과 국내의 현황에 대해서 다음 호에 알아 보도록 하자.

지 동 철
(대성교육출판 전신편집실· 컴퓨터공학과 94졸)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뉴욕매입

이제, 세계금융의 중심부 뉴욕을 사고 싶다!



1년간의 현지교육끝에 발령받은 뉴욕 현지법인에서의 생활 - 회사의 해외독신과견제에 따라 제약없이 자유롭게 밝은 현지화의 체현을 심분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아무 뉴욕법인에서의 내 첫 임무는 해외투자 - 금융개방의 물결속에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의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또 다른 승부수가 될 것이다. 국내최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국제화의 참담담계 조금은 거대한 야망을 품어본다.

세계금융의 심장부 뉴욕에 내 이름 석자를 반드시 남기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뉴욕을 사고 말리라...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종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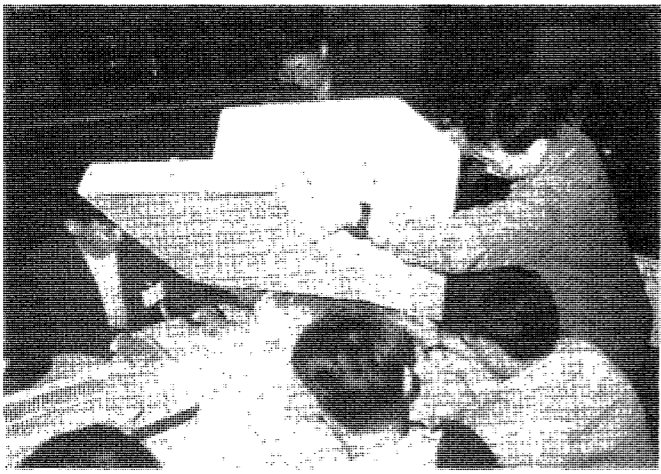
보험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 국내최대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삼성생명

총여 김령은·이재숙조 당선



◇지난 1일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개표결과 94%의 지지율로 김령은 이재숙씨가 당선돼 총여는 3년만에 부활을 맞게됐다.

제9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김령은(사회4), 이재숙(역교4)조가 당선됐다.

지난 1일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가졌던 개표결과 김·이조는 투표자 1천1백73명중 1천1백3명(94%)의 찬성표를 얻어 총여 정·부회장에 선출됐다.

지난달 31일과 1일 양일간에 걸친 투표에서 3월18일까지 등록을 마친 여학생 2천1백70명의 총유권자중 1천1백73명이 투표하여 5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은 1천1백3표로 94% 반대는 52표로 4.4% 무효는 18표로 1.6%의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법대, 사과대, 농과대)은 총유권자 2백99명중 1백86명이 투표하여 62.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백75, 반대 9, 무효 2 표를 얻었다. △지역(법대, 문과대,

이과대, 예술대)은 총유권자 8백10명중 3백94명이 투표하여 48.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3백69, 반대 17, 무효 8표를 얻었다. △지역(사법대, 공대)은 총유권자 8백18명중 4백86명이 투표하여 59.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4백60, 반대 21, 무효 5표를 얻었다. △지역(야간강좌)은 총유권자 2백43명중 1백7명이 투표하여 44.0%의 결과를 보였으며 찬성 99, 반대 5, 무효 3표를 얻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해 한장섭(독문4) 선관위장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학생회관에서 공개적 개표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별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후보자가 없어 소멸위기에 처했던 총여학생회는 3년만에 부활을 맞게 됐다.

직원노조 임금 9.8% 인상

직원노조(위원장=장운·학생처)의 임금인상률이 9.8%로 잠정 합의됐다.

지난달 31일까지 3차 교섭을 마친 단체협약의 주요사항은 근로조건에 관련된 정규 및 비정규직의 변경시 조항 참여 요건에 대해 학교측은 현행대로 참여를 불허했고, 경쟁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 합의견을 수용하여 문구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직원에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시 7일을 노조측에서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선 육아휴직시 무급을 명시 배우자 출산시 3일 정도로 제시했다.

하계방학 행정연수는 노조측과 학교측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고 해외연수는 노조측에선 어학연수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서는 연수기회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총장선출제도에 관해서는 학교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안내 인사교류 원칙이나 복지기금 적립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차교섭까지 진행된 직원노조 단체협약은 오늘(16일) 직원노조총회를 통해 일단락지어진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94임금협정 체결에 관한건, 학술문화관 건립기금 모금원, 조계중 사택에 대립 입장 표명, 단체교섭 진행 보고 등이다.

음악감상회 개최

여학생부처(부처장=박병희·가정교육학)에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자연, 사랑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란 주제로 3번에 걸쳐 갖게될 이번 음악감상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연화원 다목적강의실(학생회관 2층)에서 열린다.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가는 음악여행-변해연 박사(4/12, 4/19) △사랑의 메시지-변해연 박사(5/3, 5/10) △산소리-오페라 비교감상-노영혜 박사(5/17)

◇조계사 폭력사태에 즈음한 불교계 내외의 움직임

서의현총무원장에 대한 비리 폭로 잇따라

최근 조계사 폭력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불교계 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의현 총무원장의 퇴진을 촉구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승려대회

서의현 총무원장의 사퇴와 중단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려들의 최대집회인 전국승려대회가 오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법종추는 지난 5일 원로회의 승인에 따라 전국 사찰의 승려가 모이는 승려대회를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려대회는 지난 86년 해인사에서 전국 1천5백여명의 승려가 모임 가운데 열린 승려대회 이래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조계사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려대회와 관련해 법종추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모든 사찰에 연락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의 승려대회 중 최대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막고 거수투표를 주장해 대부분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서 원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하 스님은 "서 원장이 원로회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헌 중법에 따라 서 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오늘(6일)중진 의원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산스님 기자회견

여산 스님(금산사)은 지난 5일 중암승가대 정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 원장이 폭력배들이 목격한 서울호텔 숙박비를 지급할 것을 전 분황사 주지 도오 스님에게 직접 지시하는 광경을 폭력했다"고 폭로했다.

여산 스님에 따르면 서 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과 도오스님이 있는 자리에서 도오스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한 뒤 "서울호텔 숙박비 4백79만원을 총무원 규정부장인 보일을 찾아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산 스님은 "이번 폭력사태에 조직배편만 아니라 적극 각 사찰에 기거하고 있는 '폭력승들이' 동원됐으며 총무원 규정부와 각 본사 규정국을 통해 교구별인원할당과 비용 지급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 원장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

총무원 고위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으나 총무원 간부들에 대한 신변확보를 미루는가 하면 동원자금의 출처에 대한 본격수사도 꺼리는 등 적극적인 수사외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폭력배 동원에 앞장선 규정부 고종록 계장과 무성 스님의 견거를 위해 총무원측에 출두요청을 하는 한편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수사자가 입장을 버리고 있는 동안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광명시 일대 폭력배 나대원씨등 당시 동원된 폭력배들도 일제히 잠적한 현재까지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총무원측이 숙박비로 치른 은행카드 결제용지를 피탈하기 위해 동원한 현금 5백만원에 대해서도 "돈의 출처를 규명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동원자금의 출처로 지목된 불국사 은행계좌와 불국사 주지 종원스님이 발행인으로 있는 법보신문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총무원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음을 밝혔다.

경찰 또한 "폭력배 동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보일 스님등 총무원 간부들의 소재 파악에는 주력하겠으나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검거에 나설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처와 관련하여서도 "총무원, 불국사, 법보신문사등 어느쪽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측의 조직적인 게임 활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애포 이 사거니의 발단이 된 서의현 총무원장의 '상무대 비자금 80억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동화사 재무국장 선봉스님 양심선언

전 동화사 재무국장인 선봉 스님(대구 입후사 주지)은 지난 4일 중암승가대 정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 원장의 동화사 시주금 유용 의혹과 배관매직을 통한 서원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했다.

선봉 스님은 이날 양심선언에서 "동화사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91년 7월부터 92년 12월까지 조기현 씨가 낸 시주금이 동화사 금전출납부에 입금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봉 스님의 이런 양심선언은 조기현씨가 검찰에서 밝힌 "80여원을 동화사 시주대금으로 썼다"는 진술과 달리 조 씨가 거짓 진술을 했거나 서 원장이 조씨로부터 80여원을 직접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아권에서 주장해온 대로 이 80여원은 동화사를 거치지 않고 서의현 총무원에게 직접 건너쳐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선봉 스님은 양심선언에서 "서 원장이 주지 임명, 사찰내 각종 공사, 중회의원 선출 등 갖은 명목으로 한민은 수백~수천만원씩 공금을 삼갈받아 비자금을 조성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석중 기자)

학전무대

매우기 전성시대

○...어학자료실의 자리잡기는 별따기보다 어렵다는데. 이유인즉 어학자료실에 책만 놓고 자리를 비우는 동학인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 피해를 준다느것. 이에 동학인들의 자제를 바란다는 한학우는 "어학자료실의 자리도 설날 기차표처럼 알 거래가 있을날도 멀지 않았다"고.

아직도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한 각계의 반응

접근하면 봐-YS

..... (소소리라도 날라) - 총무원

뭐? 누가 싸웠다고. 저런! 전 북대로 이빨을 수서서도 시원치 않을... - 구경꾼1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데... - 구경꾼2

잡들어버린 지성

○...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최소한의 신성함이 보장되어야 할 대학에서 수치스러운 도난사고가 도사관에서 발생하니!"

도서관은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기 위해 찾는 곳인데 요즘은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와 갑자기 도선생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도 도난사고가 있었습디다. 도서관이용 학생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도서관 1층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던 중에 변지갑 무더기를 깨가기도 했습니다." 지난호 신문기사중 하나였던 이 기사는 온 동학인을 떠들썩하게 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한미다 "대학인이여! 지성인의 양심을 되찾읍시다."

샌드위치데이

○... "아! 샌드위치데이에 무슨 수업이야!"

어느새 부러진 휴강을 향한 학우들의 집념은 불굴의 한국인임을 확인케 할 만큼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

이에 온방골에도 지난4일-일요일과 공휴일 사이의 평일-은 '샌드위치데이'라는 신종 언어로 지칭. 이날 수업은 당연히 휴강이라는 원칙이 자리를 굳혔다고.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수업이 빼먹는게 재밌어라던 '휴강'보다는 편한 학업을 '휴업'하심이 현명할텐데요!"

야간강좌 공간문제 등 복지협상 난항

신설학과 학생회실 마련 등을 요구하며 무차별 학생처장 앞으로 공문서를 띄우는 등 '야간강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측과 협상을 해 오던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곽유찬·염문 3 이하 아총)는 지난 4일 이부대 교학과에서 2차협상을 가졌다.

기조실장, 학생처장, 야대학장과 야총 정·부학생회장이 참석한 이번 협상에선 △학생, 학장 월례 간담회 △PC실 확충 △시험실습비 공개 △취업대책 마련 등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져 오는 7일까지 서면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설학과 학생회실 마련' 문제에 있어서는 관성적 골치거리인 '공간'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총은 동국관 4층 야총학생회실

옆에 위치한 교수휴게실을 넓은 공간에 비해 적은 효율성을 들어 현재 강의가 거의 없는 강의실(L409)로 옮기고 이곳과 대의원실을 신설학과 학생회실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교수휴게용으로 인한 공간 부족과 강의실을 교수휴게실로 만들 수 없으며 임시로 신설학과 학생회실을 한곳에 마련한 후 '공간 재배치 위원회'에서 공간 문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교측 입장에 관해 신설학과인 반도체학과, 전산통계학과, 북한학과 등 세과는 과도를 거쳐 학교측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확답을 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실천도 강행하리라는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한편 공간 재배치위원회(위원장=송석구, 첩화)는 지난 3월중에 발족하고 3단계에 걸쳐 공간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아래 현재 상황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조직체계와 구체적 기획이 가시되고 있지 않아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총 학생회장인 곽유찬(염문 3)군은 "공간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신설학과 학생회실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학교는 명분을 앞세우지 말고 학생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는 7일 의견을 모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학생회비 예산 책정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학승·회계4 이하 총운위)는 지난 4일 언론협의회 예산확정을 끝으로 학생회비 예산편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3월초부터 6차례에 걸쳐 총무원연석회의를 가졌으나 각 차기구 예산요구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계속 무산되어오다 제6차 총무원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학생회비 재조정을 위해 언론협의회는 지난 31일 총운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4일 소집된 총운위에서는 총대의원회 회칙상 차기기구로 인정한 연합의 학생회비 사용권한을 인정, 각 차기기구 예산편성안에서 일률적으로 2.2%씩 연합사업예산으로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의 人才를 구한다



이름을 지닌 젊음들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곳, 바로 코오롱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재산은 없다!
이것이 코오롱의 믿음입니다.

지난 1954년 회사의 첫 삶을 뜬 후 40년이 지난 오늘, 첨단 섬유분야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기계·전자, 무역, 건설·엔지니어링, 화학, 보험, 유통등 미래산업분야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뉴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 40년은 기술개발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디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 한 사람을 구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인재를 키워 온 '인간투자'의 시간이었습디다.

세계에서 코오롱맨이 "실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드문 사람들"로 평판이 난 것도 바로 이같은 코오롱의 '인재제일주의' 때문이었습디다.

국제화에 앞장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큰 야망을 품은 진취적 인재들 동용,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일터. 각자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보람의 일터' 코오롱!

장차 한국경제의 동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젊음의 야망과 투자를 마음껏 꽃피우고 싶으십니까?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보람의 일터 - **코오롱**

◇부처님의 고향 - 인도를 다녀와서

국왕만큼 스님 존경하는 나라, 태국 한국말 하는 장사꾼 좋은 인상 못취 인도 기행... '또 다른 나' 찾는 기회

1993년 12월 10일.

그날의 아침은 여느때보다 빨리 어둠이 달아나는 듯 했다. 밥을 꼬박 새운 겨울비는 잿빛하늘에 물기를 남겼지만, 대구를 떠나 서울행 비행기는 바른시간에 김포공항 국제선 대합실로 나를 옮겨 놓았다. 부산-대구-서울로부터 약속시간까지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행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매고 있는 배낭의 모양새는 짐작으로도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약속시간 오후 3시. 7시 25분발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3년을 버려온 만큼이나 지루한 시간이었다.

32일간의 인도여행!
이처럼 파격적인 모험은 무작정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불교학과 91학번의 동기애로, 2년간의 저축과 불교유적의 학습 및 인도관계 서적을 통하여 공부해온 밑천으로 그 모험을 작정한 것이다.

20명이 넘는 팀원으로서 개인의 사정으로 포기한 나머지 91학번 9명과 선배 2명, 그리고 후배 2명이 일행으로 떠나게 되었다. 물론 우리들의 여행목적은 불교성지순례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2천6백 15년 동안의 진리를 두고 가신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뚜렷하게 느껴보는 것이다.

인도의 캘커타로 가기위한 경유지는 방콕이었다. 오후 7시 25분의 서울로부터 5시간55분을 날아간 방콕의 돈무양 국제공항 현재시각은 11시 50분. 서울과의 시차는 2시간이다.

급연속 가까운 자리에서 보인 연기에 시달린 일행은 짜증스런 모습을 감출 수 없었지만, 5시간55분의 비행으로 지쳐있을 이유는 없었다.

이튿날, 캘커타행 오후 6시40분 인도공항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국말 잘하는 현지 여행사 가이드를 통한 방콕의 시내관광을

로 일정을 잡았다. 오전에는 에머랄드사원과 수상시장, 공원으로 오는 오후시간에는 토산품점을 구경하였다.

태국은 전국민의 95%가 불교인이다. 특이한 것은 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일생의 1개월동안 출가수행을 한다.

그 나라만이 가지는 불문율의 관습으로, 취직이나 재관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국왕 다음으로 스님을 존경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의 부러움을 받기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다.

관광지의 어느곳에서나 약속빠른 상업성 분위기는 여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동남아 여행용으로 한국인이 새겨놓은 인상은 아주 고약한 것이었다. 사원의 높은 장소에 한글로 써여진 붉은 경고문을 우리는 부끄럽게 했다. "주의 울라기까지시오" 하지 말라는 것을 애써 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의 어른들은 한국의 아이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활영금지구역에 배경으로 거머져 사진을 찍고 싶었던가 보다. 막무가내로 물건값을 깎아대는 한국인에게 "안 비싸, 진짜야. 3개 만원, 달러도 받아"라며 외쳐대는 장사꾼의 어설픈 한국말은 나의 귀적으로 조롱하듯 들렸다. 우리들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의지국 사람들의 멋진 인상 대신 험악한 많은 물건을 욕심껏 사고 문화재의 감상보다 외국관광 기념을 위해 사진 찍어대기 바쁜 한국사람들, 어디서부터 잘못 되어진 결과, 곱씹어 볼 일이다.

어쩌면 멀리 있는 인도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나라가 태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정은 단 하루로 떠나야 했다. 점심은 먹은 일행은 일찌감치 방콕 시내를 빠져 나왔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 나라의 도로에서는 짜증스런 클락션 소리가 없었다. 더위에 지쳐사는 사람들 특유의 내뿜어졌을

까, 아니면 우리들처럼 서두를 일 없는 여유로움이었을까?

오후 3시, 돈무양 국제공항으로 달려온 일행은 활주로쪽으로 트인 창밖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우리들의 모험을 포박포박 새겨 보았다. 7대 성지와 인도의 문화,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더운 가슴이 되는 듯 했다.

6시40분, 인도의 남자 승무원과 사리(인도의 전통 여자복식)를 입은 여자 승무원의 안내로 인도항공 기내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체온과 기내에서 풍기는 알 수 없는 향기에 밀려있는 좌석은 세계 제일의 지저분한 비행기기로 소문난 그대로였다. 냄새나는 담요, 들리지 않는 이어폰, 안전할 것 같지 않은 생명기.

민물수 없는 기내 비치품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했다. 활주로의 안개를 건너쳐며 비행기는 이륙했다.

출발! 가슴 한구석에서 잔잔하게 흔들리던 그때의 동글함은 무엇이 있었을까. 낯선 향기에 묻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코밑으로 다가온 기내 음식은 풍기는 맛에서부터 먹는 즐거움 대신 질은 향신료에 주눅이 들었다. 음식그릇을 비워내는 대신으로 커피 한잔으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한끼쯤 배를 채우지 않아도 시정기를 느낄 수 없었던 우리들의 여유로움은, 그후 인도의 땅에서 먹어 도둑이라도 허기에 시달려야 했던 불상사를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다.

식사시간을 보내고 밤하늘을 날아가면서 잠시 되뇌어 보았다. 부처님의 고향으로 가는 길, 많은 시간들이 흐른 지금에도 진리의 힘 하나로 오로지 우리를 바르게 한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오후 6시40분에 방콕을 떠난 인도항공은 2시간 20분을 날아왔다. 캘커타 뚝뚝(Dum Dum) 공항의 현재시각은 오후 9시, 한국의 시간보다

3시간30분 더 흐른다. 밤안개 사이로 매캐한 공기가 흐르고, 언젠가 꿈에서 헤매던 장소와 꼭 닮았노라 소리를 치던 팀장언니의 목소리는 사뭇 흥분된 듯 했다. 팀장언니의 감회처럼 꿈에서라도 오고 싶었던 태국의 나라.

막연한 동경과 떠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작심처럼 내 속에 숨겨진 또다른 나를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감으로 주먹을 힘껏 쥐어보기도 했다.

지루하리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시간만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수많은 인도사람 속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선배를 만날 수 있었고, 침바지와 운동화대신 편자브(인도의 활동복)를 입고 샌달을 신은 선배의 차림은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2년동안 유학생살로 한국의 작은 여학생을 이렇게 변모하게 하는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 알고 싶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떠올리면 인도를 닮아 있었던 그녀의 선배 모습이었다.

태안인 이방인들의 출현으로 공평한 택시 기사들은 매미떼처럼 웅성거렸고, 인도 여행의 시작은 교통수단의 혼잡으로부터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계속)

패션 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알림

8면에 연재하는 동국기사를 이번호는 6면에 게재합니다. 필자와 독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문화부)

영화의 패러독스 이정국 감독 '두 여자 이야기' 페미니즘 다룬 복고적 민족영화



우리민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영화는 우리 민족 내적정서를 표출하는데 종래와는 다른 시각으로 감정의 과잉배설이 주 모티프이다.

'부활의 노래'를 통해 충무로 제1권 영화에선 처음으로 광주화살을 다루었던 신에 이정국 감독이 '두 여자 이야기'를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감독은 이 작품이 요즘 유행하는 두 조류를 혼합해놓은 것임을 알게 한다. 그 하나는 '서편제' 이후의 복고적 민족문화, 정서로의 회귀이고,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적 소재이다.

이 영화는 사극은 아니지만 625 이후에서 80년대까지의 현대사를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무대도 서술이 아닌 시공로 설정하여 지난간 시대의 우리민족의 원형적 삶의 흔적을 더듬게 만든다.

이 영화의 두 축인 민족정서와 페미니즘은 다시 하나로 만나지는 데, '한국인은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되새겨진다. 그만큼 이 영

화는 우리민족이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늘어진다.

'두 여자 이야기'는 말 그대로 봉건적 가부장 질서내에서의 본체와 힘 두 여자의 갈등과 애환을 그리고 있다. 남자를 출산하지 못해 첩을 들이고 첩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영화가 재미있는 점은 빛을 갖기 위해 선원이 되었다가 죽은 남편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소위 '가부장적 죽음'이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두 여자는 처음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헤게모니의 싸움에 휘말리지만, 나중엔 화해를 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삶의 지혜를 관객에게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적인 삶의 굴종적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런 우리 선조여성들

의 공물체적 삶의 해결방식인 것이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 민족의 내적 정서를 표출하는데 있어 종래와는 다른 시각을 취하고 있다. 멜로 드라마의 중요한 공식 중 하나인 '감정의 과잉배설'이 이 영화를 끌어가는 주요 모티프에 해당한다. 싸우고, 부수고, 울고 하는 감정의 과잉배설이 관객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정서가 단아하고 고상하며 권위적인 상부계층의 문화적 성격이 아니라, 기층민중의 억눌린 감정의 발산과 그 정서적 과잉에 보다 더 큰 비극과 가치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무소유의 역리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심정을 가늠케 한다. 마치 인간의 역사는 소유사(所有史)인 것 처럼 말이다. ▲지난 29일 '조계사에서는 서의현 총무원장 3인을 반대하는 범승가중단체추진위와 서의현 총무원장 자신의 3인을 위해 요청한 조직경쟁을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상무대 공사비중 80억의 유용과 주지 임명시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상납등 서의현 총무원장의 갖가지 비리에 대해 동화사 재무국장을 지낸 선봉스님

의 암시선언이 있었다. 불교계의 거대한 중단의 조계종이 어수선해졌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총무원장이라는 막대한 권력의 힘과 개인 소유욕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사태는 그리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시끄러워 졌다. 일을 다룰수 없는 사건들이 매시마다 터지고 있다. 무슨 부정, 무슨 비리의혹등 갖가지 형태로 시작해서 사회전반에 걸쳐있다. 종교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는 모양이다. 아쉽게도 벌인 일을 다룰수 있도록 후련하게 해결된 사건은 없었다. 들추는 정도도 끝나버린다. 근본적으로 모순된 사회제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해결 하기에 무려없는 모양이다. 이러한 현 사회에서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수 있다는 말 즉 무소유(無所有)의 역리(逆理)만을 다시한번 되뇌일 뿐이다. (泰)

Wedding Shoes

제3회 비제바노 워딩슈즈 대학생 디자인공모전

■공모기간: '94.4.1(금)~'94.5.10(화)
 ■공모부문: 1) 워딩슈즈(숙녀화) 2) 워딩슈즈(신사화) 3) 웨딩샌드럴
 *각 부문별 복수 응모 가능하며 응모작품수 제한 없음
 *종류: Wedding Shoes 또는 Ceremony Shoes)의 개념에 적합한 디자인
 ■응모자격: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응모요령: ●응모원서배부: 인근 비제바노 매장에서 워딩슈즈(탈착식 장식포함)를 참조하시고 매장에 비치된 응모원서를 배부받아 응모권을 작당 뒷면에 부착하기 바람
 ●출품규격: 8월지(가로 37cm×세로 25cm) 규격입수
 ●Coloring: 색도 및 재질 제한없음
 *Detail이 필요한 경우 부본도사하고 작품의 재질 및 제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하기 바람
 ■수상작발표: '94.6.24(금) 개별통보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 상금 각 50만원 가 사: 15명 각 부부분 5명 비제바노 구두 1주

■심사방법: ●1차 작품심사(스케치): 50명 선정 '94.5.20(금) 개별통보 ●2차 실제작물 심사: '94.6.22(수) 개별통보 ●스케치 심사에서 선정된 50명이 본인 직접 샘플 제작하여 실제작물로 최종심사함(샘플 미제출자는 선정대상 탈락) *샘플 제출 마감: '94.6.20(월)
 ■심사기준: 각 부문 출품작 공통 - 창의력 50점 실용성 30점 색채구성력 20점 전문가 위촉예정
 ■기타사항: ●입상작 판권은 (주)비제바노에서 소유하며, 상품화 할 수 있음 ●입상작이 이미 발표된 작품과 동일·유사할 경우 입상 취소됨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비제바노 전국직접 및 대리점 영업부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유빌딩 10층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 *문의처: Tel. (02)565-8224 (비제바노 영업부)

고급의 날을 더욱 빛내드리는 비제바노 워딩슈즈... 그들 고지향의 아름다움과 단아한 매력은 여느 디자인, 어떤 디자인보다도 신성한 장소에서 모든 여성으로 최고의 작품을 창조해 보십시오.

총이 매혹적인 구두계산

비제바노

1982 SINCE